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영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Mi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저하,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35명이며, 조사한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 23.0을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enter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선택동기( $F=3.900,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r=-.269, p=.002$ ) 및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 $r=-.469, p<.001$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beta=-.225, p=.004$ )와 대인관계( $\beta=.446, p<.001$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취업설명회 및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nfirm and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major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5 nursing students attending three universities in B city.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23.0. Our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nursing department selection motive( $F=3.900, p=.005$ ).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s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major satisfaction determined that th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r=-.269, p=.002$ )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r=-.469, p<.001$ ).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major satisfaction were academic stress( $\beta=-.225, p=.004$ )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a=.446, p<.001$ ). Results of this study necessitate the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impl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s, and apply employment briefing sessions and employment competency strengthening programs.

**Keywords** :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jor Satisfaction, Nursing

---

\*Corresponding Author : Min-Young Kim(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0502young@hanmail.net

Received July 15,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19,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대학생은 좋은 직장 취업이라는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취업을 위한 자격역량을 쌓기 위해 학점을 향상하는데 몰두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1]. 학업스트레스란, 학교생활 동안 학생이 학업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즉 대학생 개인의 학업과 관련된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열등감과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의 적응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3]. 특히,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공대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의 타 전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간호대학생은 다른 학과와는 달리 간호학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접하게 되어 긴장감을 느끼고[4],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교과과정 및 학습량, 엄격한 행동규범, 임상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인해 많은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으로[5]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6].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대학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과업을 지닌다[7].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 실습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시기에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타 전문직종과의 대인관계 능력을 준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8].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많은 조별과제 및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대상자와의 만남 등 서로 다른 대상과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간호대학생이 낮은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 효과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현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 간호대학생

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며, 전공에 만족하느냐가 대학 생활의 적응, 진로 선택, 진로 행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12]. 특히 간호대학생은 향후 자신의 직업에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3]. 간호 및 보건계열 신입생들의 전공 만족을 조사한 Lee[14]는 간호 및 보건계열 신입생은 취업을 위하여 국가시험 합격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학업 적응력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9].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은 타 전공대학생들과 같이 취업에 대한 걱정 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로 스트레스가 높고 엄격한 교육과정과 위계질서, 과중한 학습량,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수행,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감, 간호사로서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 등의 학업스트레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대인관계능력 및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 2.2 연구 방법

###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16] 하여 G 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80%, 효과의 크기( $f_z$ ). 15, 독립변수 12개로 산출해 본 연구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총 127명이 추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15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35명의 표본수가 결정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Bak과 Park[17]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73~.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71로 나타났다.

### 2.3.2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을 위해 Buhmester 등[18]이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 척도를 Kim과 Kim[1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에 응답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52로 나타났다.

###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Ha[20]가 개발하고 Song[21]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다. Song[21]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36으로 나타났다.

## 2.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및 비밀유지, 연구 참여 도중 중단 가능함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발적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연구 완료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 2.5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은 B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일에서 2021년 6월 7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와 대면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작성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rogram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enter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11명(82.2%)으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고, 연령은 20~22세가 9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6.7%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80명(59.3%), 1학년이 49명(36.3%)의 순으로 많았다. 수면시간은 5~6시간 미만이 42명(31.1%), 6~7시간 미만이 45명(3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휴학경험은 '없다'가 109명(80.7%)으로 월등히 많았다. 학점은 3.0~3.5미만이 50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5미만 6명(4.4%)으로 가장 적었으며, 고민상담의 대상은 동성 친구가 86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동거가 90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 이상이 31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40~49만원과 20만원 미만이 25명(18.5%)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을 고려'가 83명(61.5%), '적성고려'가 29명(21.5%), '주위권유'가 15명(11.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5명(3.7%), '성적고려'가 3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 cent (%)
Gender	Male	24	17.8
	Female	111	82.2
Age	20~22	90	66.7
	23~25	17	12.6
	26~28	18	13.3
	29~31	5	3.7
	32≤	5	3.7
Grade	1st Grade	49	36.2
	2nd Grade	80	59.3
	3rd Grade	2	1.5
	4th Grade	4	3.0
Sleep (hour)	<5	21	15.6
	5~<6	42	31.1
	6~<7	45	33.3
	7~<8	21	15.6
Leave of absence experience	Yes	26	19.3
	No	109	80.7
Grades	4.0~4.5	13	9.6
	3.5~<4.0	48	35.6
	3.0~<3.5	50	37.0
	2.5~<3.0	18	13.3
	2.0~<2.5	6	4.4

Counseling for concerns	Same-sex friend	86	63.6
	Opposite sex friend	15	11.1
	Professor	6	4.4
	Parents	17	12.6
	Etc	11	8.1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90	66.7
	Living alone	25	18.5
	Dormitory	15	11.1
	Etc	5	3.7
Income level (Million Won)	<20	25	18.5
	20~30	24	17.8
	30~40	30	22.2
	40~50	25	18.5
	50<	31	23.0
Motivation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Consideration of aptitude	29	21.5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rate	83	61.5
	Considering the score	3	2.2
	Recommended around	15	11.1
	Image about nurse	5	3.7

###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최고 6점에 평균  $2.36 \pm 0.80$ 점이었고,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  $3.65 \pm 0.55$ 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7 \pm 0.5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cademic stress, Relationship and Major satisfaction (N=135)

Variables	M±SD	Min	Max
Academic stress	2.36±0.80	1.00	4.02
Relationship	3.65±0.55	1.95	4.95
Major satisfaction	3.67±0.57	2.45	5.00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선택동기(F=3.90, p=.005)를 제외하고는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3.88±0.67	2.13 (.072)
	Female	3.62±0.52	
Age	20-22	3.68±0.54	1.51 (.202)
	23-25	3.49±0.57	
	26-28	3.73±0.61	
	29-31	4.06±0.64	
	32<	3.38±0.52	
Grade	1st Grade	3.74±0.61	0.58 (.632)
	2nd Grade	3.62±0.51	
	3rd Grade	3.45±0.64	
	4th Grade	3.60±0.87	
Sleep (hour)	>5	3.65±0.53	1.62 (.172)
	5-<6	3.72±0.60	
	6-<7	3.52±0.54	
	7-<8	3.79±0.52	
Leave of absence experience	Yes	3.65±0.57	-0.14 (.691)
	No	3.70±0.56	
Grades	4.0-4.5	3.71±0.62	1.10 (.358)
	3.5-<4.0	3.64±0.46	
	3.0-<3.5	3.76±0.59	
	2.5-<3.0	3.44±0.60	
	2.0-<2.5	3.67±0.70	
Counseling for concerns	Same-sex friend	3.68±0.56	0.12 (.976)
	Opposite sex friend	3.65±0.58	
	Professor	3.53±0.76	
	Parents	3.64±0.45	
	Etc	3.69±0.66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3.66±0.56	0.44 (.727)
	Living alone	3.64±0.45	
	Dormitory	3.62±0.70	
	Etc	3.94±0.63	
Income level (Million Won)	<20	3.58±0.51	0.68 (.604)
	20-30	3.81±0.64	
	30-40	3.59±0.51	
	40-50	3.67±0.53	
	50<	3.69±0.59	
Motivation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Consideration of aptitude	3.90±0.52	3.900 (.005)*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rate	3.56±0.55	
	Considering the score	3.81±0.71	
	Recommended around	3.58±0.49	
	Image about nurse	4.25±0.40	

p\* < .05

### 3.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r = -.269, p = .002$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 $r = .469, p < .001$ )는 양의 상관관계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Academic stress, Relationship and Major satisfaction (N=135)

Variables	Academic stress r(p)	Relationship r(p)	Major satisfaction r(p)
Academic stress	1		
Relationship	-.111 (.199)	1	
Major satisfaction	-.269** (.002)	.469** (<.001)	1

p\*\* < .05

### 3.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간호학과 선택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를 진단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8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beta = -.225, p = .004$ )와 대인관계( $\beta = .446, p < .001$ )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 affecting on Major satisfaction (N=135)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Tolerance	VIF
	B	SE	$\beta$				
(constant)	2.350	.328		7.163	<.001		
1	-.157	0.053	-.225	-2.966	.004	.974	1.027
2	.448	.076	.446	5.927	<.001	.987	1.013
3	.025	.042	.044	.587	.558	.984	1.016

R2=.269 Adj.R2=.252 F=16.080(p&lt;.001)

1.Academic stress

2.Relationship

3.Motivation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간호학과 선택동기를 살펴보면 취업률고려(61.5%)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이 간호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Shin[22]의 연구에서 보건계열을 선택하게 동기가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결과로 뒷받침된다. 취업률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어 타 전공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23]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취업률에 있어 간호학과 선택동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4]. 따라서 간호학과 선택에 지원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취업률에 대한 홍보 및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재학생들에게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성과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6점 만점에 평균 2.36±.5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Byun[25]의 연구 2.33±.37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실습수행과 학업성취가 함께 이뤄져야하므로 과도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고, 취업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학업이 요구되므로 학업스트레스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학업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

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65±0.55이었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oo와 Im[26]의 연구에서 3.68점과 비슷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7]의 연구에서 2.79점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들을 접하고, 조별과제 등으로 협력관계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신감 향상 훈련, 동아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67±0.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Jung 등[28]의 연구 3.56점과 비슷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학과선택에 있어 취업률을 고려한 점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29]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r=-.269$ ,  $p=.002$ ),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 $r=-.469$ ,  $p<.001$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Yang 등[30], Jung 등[3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과중한 학업부담감이 학업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국외 연구결과[32]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교수제, 학업상담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강화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난 Kwak과 Yi[33], Oh 등[3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향상되고[35], 임상실습 등의 전공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므로[26]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

호대학생은 전공수업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포함한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으므로[32] 그 스트레스 원을 찾아 증재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공수업 및 임상실습의 개선, 학습지도 체계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Kwak과 Hwang[36]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를 들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강조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일 뿐 아니라,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7]. Lim[10] 및 Lim과 Lee[3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 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를 제외하고는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선택 동기 중 '취업률고려'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인관계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취업설명회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아직 활발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재방안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후 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지역의 연구결과라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범지역적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Community Nursing Society*, Vol.27, No.2, pp.124-131, 2016.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2.124>
- [2] M. J. Seo,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 815-824,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 [3] S. Y. Roh,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Vol. 25, No. 2, pp.203-209, 2017.
- [4] M. H. Lee, M. S. Park,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863-872,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863>
- [5] Y. S. Kim, Y. H. Kim, "Effects of Brain Respiration Program o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 No2, pp.251-261, 2009.
- [6] J. E. Lee, "Influences of th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pp.2829-2840, 2021.
- [7]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3rd ed. New York: Norton & Company; 445, 1993.
- [8] J. O. Jeong, S. Kim,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344-356,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3.344>
- [9] J. E. Lee, H. W. Kwak,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Vol.14, No.11, pp.527-537, 2016.
- [10] M. 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225-23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 [11] M. H. Jeong,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Tourism research*, Vol.34, No.2, pp.179-200, 2019.
- [12] K. H. Kim, H. S. Ha,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13] K. H.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1, pp.5-13, 2012.  
DOI: <https://doi.org/10.5977/jikasne.2012.18.1.005>
- [14] J.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tabilit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Majoring in Nursing and Health Science",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4, No.4, pp.269-276, 2016.
- [15] E. Y. Kim, Y. S. Kim, S. B. Lee, Y. J. Kim, J. S. Lee, G. Y. Shin, "Comparison of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jor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pp63-63, 2018.
- [16] Erdfelder, E., Faul, F., Buchner, A. (1996). G\*Power
- [17] B. G. Bak, S. 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2, pp.563-585, 2012.
- [18]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1988.
- [19] C. D. Kim, S. I. Kim,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Improving Interpersonal Skill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Center*, Vol.35, No.1, pp.85-95, 2001.
- [20]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7-20, 2000.
- [21] Y. J. Song, G. 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Center for Korean Educ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Vol.34, No. 4, pp. 16-27, 2016.
- [22]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0, No.4, pp.663-670, 2010.
- [23] J. Y. No, S. J. Park, D. Y.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2, pp.88-94, 2012.
- [24] D. K. Lim, H. S. Kwon, W. J. Oh,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Vol.6, No.4, pp.85-109, 2016.
- [25] S. H. Choi,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2303-2313, 2016.
- [26]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 pp.311-321, 2013.
- [27] S. O. Kim, S. M. Kim,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Usage Level of Nursing Students PDF ic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1, pp.563-574, 2016.
- [28] J. S. Jung, M. J. Ju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8-36, 2014.  
DOI: <https://doi.org/10.5977/jikasne.2014.20.1.27>
- [29] E. m, Jun, S. W. Kang,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A collection of papers on natural sciences*, Vol.30, No.1, pp.31-35, 2019.
- [30]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 [31] H. S. Jung, J. H. Mo,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physical symptoms on academic grades and satisfaction with beauty art major",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3, No.3, 417-423, 2015.
- [32] W. M. Chimomas, C. Shapiro,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0, No.1, pp.255-266, 2013.
- [33]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147-55, 2016.
- [34] Y. J. Oh, E. S. Lee, M. S. Park, E. M. Lee, "The Effect



-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pp.787-797, 2021.
- [35] H. I. Lee, "A study of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in University College*, 19(1), 27-40, 2010.
- [36] H. W. Kwak, S. 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5, No.2, pp.239-249, 2017.
- [37] Y. K. Yang,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5, No.2, pp.99-108, 2018.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8.25.2.99>
- [38] E. J. Lim, M. H. Lee,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279-286,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279>
- 

김민영(Min-Young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2021년 2월 :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특수아동간호